

종합

“광주~순천 경전선 복선화 2015년께 착공”

이정현 의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2020년 이내 완공 가능성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번 주 발표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다. 27일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15년 이후 사업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오는 2015년 직후 착공, 이르면 2020년 이내에 완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전선 광주~순천 복선 전철화가 완공되면 연간 교통비용이 1000억원 이상 절감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에 대한 열차화물의 직결수송 체계가 확립된다.

특히, 경전선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망이라는 점에서 영호남의 교류 촉진과 남해안권 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초 국토부는 광주~순천 국간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2020년 이후 추가 검토 사업 대상으로 분류, 사실상 정부 사업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완강했던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Mr 경전선’이라는 별명을 얻은 정도로 끈질긴 설득과 압박을 펼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노력이 주요

했다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토부, 국토연구원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계속해서 설득하는 한편, 청와대와 한나라당에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예를 태웠다”며 “광주시와 지역 경제, 시민사회 등과의 공조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광 원전 가동중단 판매손실 810억

최근 10년간 25건 ... 국내 원전 전체는 3330억

최근 10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이 나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판매손실이 333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노영민(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중단된 것은 89건이며, 이로 인한 판매손실액은 3329억9295만원이었다. 발전소별로는 울진원전(1~6호기)이 39건에 197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광원전(1~6호기) 25건 810억원, 고리원전(1~4호기) 14건 353억원, 월성원전(1~4호기) 11건 1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동중단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울진 4호기(10건)였으며, 울진 1호기는 8차례 중단됐지만 중단 시간이 가장 길어 1121억원의 최대 판매손실이 발생했다. 고장 원인으로는 온도나 압력 등을 수치로 나타내는 부품의 계속 결함,

기계·전기 결함 및 인적 실수 등이 있었다. 특히 2008년 배수밸브 고장으로 방사능 누출 경보기가 작동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던 영광 5호기의 경우 올해 ‘주급수 제어밸브 오작동’과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의한 원자로 정지’ 등으로 2번이나 가동이 중단됐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노 의원은 “고장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판매손실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 주민 27명 송환. 지난달 5일 서해 상에서 표류하다 남한한 북 주민 27명(남성 9명, 여성 18명)이 27일 오후 북측으로 송환됐다. 사진 위는 송환을 위해 오전 인천항에서 해군 함정으로 오르는 북한 주민이며, 아래는 해경 함정에 이끌려 북방항계선(NLL)으로 향하는 북측. 목선에 타고 있는 이는 우리측 해경이다. /연합뉴스

정월대보름을 ‘김의 날’로 제정. 정부 소비촉진 추진. 정부는 김 산업 발전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앞으로 매년 ‘정월대보름’을 ‘김의 날’로 제정해 관련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작년에 기록한 사상 처음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김 생산·수출업체 및 관계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의 날’ 선포식 기념행사를 갖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김산업은 오는 2015년에는 1억1600만달러(1300만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푸른길 공원 ‘새단장’

청소·시설물 보수 등 관리시스템 검토 착수

광주시가 시설 과다 설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관리 이원화 등으로 푸른길공원이 경범한 도심 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3월23일자 1면 보도)에 따라 광주·자치구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27일 “도심철도 폐선부지에 조성한 푸른길공원 연장 7.9km 중 남광주역사 주변 0.3km를 제외한 7.6km 완료구간에 대해 대대적인 청소를 끝냈으며, 시설물 정비 등 향후 공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청소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관리인원 30명을 고장배치하기로 했으며,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자원봉사자 및 감시단원으로 위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과소된 시설물 중 예산부족으로 미처 보수하지 못한 시설물은 관련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정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푸른길공원이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도록 시민·전문가·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양곡 방출 시기 신중한 결정을”

전남도 “쌀값 오름세 찬물 끼얹는 꼴... 농민도 불안”

정부가 최근 쌀값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정부양곡을 방출하겠다고 결정하자 전남도가 시기조절 등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비축 양곡 시중 방출은 쌀값 및 수급 안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정부양곡 공매 시 방출기준(원칙) 준수 등 쌀 수급안정대책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산지 쌀값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1.4분기 공매 예상가격인 15만1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정부양곡 15만5천톤을 방출하기로

한데 대해 시장과 농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결정은 애초 방출 기준(15만1000원)에 미흡한 가격시점(14만9000원)에 발표한 것으로 농협과 농가들로부터 모처럼 오름세를 보이는 쌀값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산지 쌀값이 다소 올랐지만 이것은 작년 폭락세를 만회하는 회복단계이며 최근 5년 평균 쌀값(14만9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person looking at a clock and a speech bubble saying '8월 전 체르노빌 재진수준' (Chernobyl re-approach level before August). Below it says '우린 언제까지 똑같은 소리만...' (We only hear the same sound over and over again...).

광주시 지방직 9급 공채 평균 51.8대 1 경쟁. 광주시는 27일 “2011년도 지방직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125명을 뽑는 9급 공채에 6471명이 지원해 평균 5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인 46.8대 1(140명 선발에 6555명 지원)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기관별 경쟁률은 광주 본청은 100명 선발에 4993명이 지원해 49.9대 1, 광주시교육청은 25명 선발에 1478명이 지원해 59.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일반행정직은 45명 선발에 3382명이 지원해 7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교육행정직은 19명 선발에 1352명이 지원 71.2대 1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산 유기농식품 체험단 100명 모집. 전남도는 도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유기농 식품 홍보를 위해 ‘전남산 유기농식품 체험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유기농 식품 체험단은 전남산 유기농식품을 체험한 소감을 개인 블로그나 블로그와 연계된 소셜커머스(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5월 말까지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체험단 참여신청은 주부나 소비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다음달 17일까지 전남산 농수특산물 온라인 매장인 남도장터(www.jnmall.com)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벤트 코너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면 'F'서 계속. 세계 각지에서 몰린 30만 이상의 팬들은 예선전이 열리기 하루 전인 24일부터 서킷이 있는 엘버트 파크와 도심 곳곳 바와 클럽에서 한바탕 축제를 즐기면서 멜버른을 밤늦게까지 깨워주었다. 예선전이 열린 하루 동안 6만8700여명의 팬들이 경주장을 찾았고 결승이 치러진 27일에는 경기 시작 5시간 전인 12시부터 서킷까지 무료로 운행하는 트램(트램·노면전차)을 타려는 관중의 행렬이 이어졌다. 중심가 인 근 호텔 숙소가 뚝뚝 가격도 2배 이상 뛰었다. 경주장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기간 경주장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30만5000명보다 많은 35만여명으로 추산했다. 호텔·식당 인산인해 ‘잠 못드는 멜버른’. 멜버른 시내 이탈리아 요리로 유명한 리곤 스트리트(Lygon Street) 일대는 빨간색 페라리 깃발이 곳곳에 내걸렸고, 도심 곳곳에서 호주 출신 F1 드라이버 마크 웨버(Mark Webber)가 속한 레드불 레이싱팀의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쓴 젊은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호주 국민, 특히 젊은 남성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인 F1 티켓이라는 말도 나온다. 경주장 앞에서 만난 발렌시아(31)씨는 “마크 웨버가 우승하는 것을 보러 왔다”면서 500달러 짜리 티켓을 자랑스럽게 흔들었다. 경주장 주변에 마련된 24개 팀 로고 박힌 상품 판매점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고 수많은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공원 잔디밭에 앉거나 누워 경주 외에 치러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맥주를 마시면서 캠핑장을 방불케했다.

의료개방과 통합의학 시대를 준비하는 전통침구학 연수세미나. * 의료개방 대비, 통합의학에 필요한 인재양성 * 해외 침구사 양성 및 한방병원 설립, 취업지원 * 중국 중의대학교와 학술교류로 중국자격증 취득가능 * 가정생활상식, 자가진단을 위한 세미나 * 27년간 침구학을 전문으로 강의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안내: 기본과정(4개월), 중급과정(6개월), 전문과정(1년), 연구과정(3개월~1년, 과목별).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1544-5359. 광주분원: 062)236-3516.

장성을 중심에 위치한 임대/분양 공장 푸른산 테크빌. 즉시 입주 및 생산가동 가능. 군보조금 지원으로 파격적인 임대료. 대폭 저렴한 분양가. 분양/임대: 총연건평: 4,000여평, 부지면적: 6,200여평. 170㎡ (57평형) 창업, R&D용, 330㎡ (100평 대), 660㎡ (200평 대), 1,000㎡ (300평 대), 1,300㎡ (400평 대) 다수 준비됨. 문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38 삼양과 자연(주). TEL: 061-393-7855/7 (현장 사무실). www.bluemountainvil.com

식당용 중고품 - 매매전문 -. 병장고 A/S전문, 주방용품. 광주·전남, 북 전지역 출장형.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 직통 011-9430-1698.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첨단점 062) 945-8778.

가족을 찾습니다. ●발견일시: 1978년 9월 4일 ●발견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파출소 부근에서 길을 잃은 채 발견된 왼쪽 상단 사진에 나온 남자 아이(당시 추정 나이 5세)를 아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광천동 부근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혼자 집에서 동생들(형제 혹은 남매 가운데 첫째로 아래에 한두 명의 동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을 주려고 과자를 사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고, 이를 지나다던 자전거를 탄 남자 행인이 발견해 광천파출소로 데려다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특이사항: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혼자 자신과 동생(들)을 기르며 작은 선술집을 한 것으로 기억함. 할아버지는 (B)형이고, 발견 당시엔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푸른색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동그란 얼굴에 눈이 커다란 편임. 발견된 다음해인 1979년 말에 스웨덴으로 입양되어 현재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컴퓨터 엔지니어로 독일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Audi) 자동차 회사의 자매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자동차 제어 기술 팀장으로 일하고 있음. 위 사람이거나 가족에 대해 아시는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10-6622-0000 신림사(한국인 친구) ☎ 010-9556-0000 광주일보 이문수 부국장